

서산시 상징물 시 새(鳥) 재정립 기초 연구

정 옥 식 · 장 하 라

충남연구원 공간·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/ 연구원

oksik@cni.re.kr / janghara@cni.re.kr

이 연구는 서산시의 생태 환경과 역사·문화적 특성, 미래 정책 비전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상징물 후보를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

CONTENTS

1. 연구개요
2. 서산시 조류 서식 현황과 특성
3. 서산시 상징물 후보종 선정
4. 서산시 상징물 후보종 가치와 의의

요약

- 본 연구는 새로운 상징물 후보를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
- 서산시 조류 서식 현황을 통해 뚝부기, 독수리, 흰꼬리수리, 흑두루미, 쇠제비갈매기, 큰기러기, 두루미, 황새 등을 1차 후보로 선정하였음
- 대중성과 대표성, 역사성, 보전가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뚝부기, 독수리, 큰기러기, 두루미, 황새 등을 최종후보로 선정하였음
- 뚝부기는 모든 이의 고향 이미지인 서산시의 ‘따스함과 그리움’을 상징하며 독수리는 지방 자치의 근원인 ‘경제적 자립, 으뜸 도시’를 표방함
- 큰기러기는 서산시가 지닌 ‘낙낙함과 풍요로움’을 상징하며 두루미는 ‘높은 뜻과 올바름으로 미래를 향한 비행’을 상징함
- 황새는 ‘복지와 인구 증가’의 결실인 살기 좋은 서산시를 상징함



충남연구원
ChungNam Institute

01 연구개요

1. 연구 필요성과 목적

가. 연구 필요성

- 도시의 정체성 확립, 시민의 자긍심과 위상 제고 등의 목적으로 많은 지자체는 새(鳥)와 나무, 꽃 등과 같은 자연물을 상징물로 선정하고 있음
- 이 중 새는 국내뿐 아니라 여러 문화에서 '인류가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자유'와 '신성한 힘과 우리를 연결하는 메신저'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강하고, 대중적으로도 친근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상징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
- 현재 서산시의 상징물인 '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'는 서산시민의 화합과 단결, 친환경 서산을 상징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 중심으로 발돋움하자는 취지로 2005년 선정되었음
- 하지만, 지난 20여년 동안 서산에 도래하는 이들 종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였고, 대중적 상징성마저 퇴색하였으며 무엇보다 현재의 서산시 위상과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임
- 따라서, 역사성과 대중성 그리고 서산시가 지향하는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물이 선정이 필요한 상황임

나. 연구 목적

- 본 연구는 서산시에 현재 서식하거나 과거 서식했던 조류 중 서산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대표하고 서산시가 추구하는 미래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징물의 후보

군을 검토,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

- 더불어, 각 후보 종들의 생태적 특성과 의미 등을 제시하여 추후 시민이 참여하는 상징물 선택하는 과정에서 서산이 지닌 조류 서식지와 생물 종의 가치 증진과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

2. 연구 방법

가. 문헌 조사

- 서산은 국내 대표 월동지 중 하나인 천수만(간월호, 부남호)을 비롯하여 잠홍저수지, 성암저수지, 풍전저수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국내 월동조류 서식지로서 기여도가 높은 지역임
-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‘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’ 자료를 중심으로 서산 지역에 월동하는 멸종위기종 혹은 우점종 등을 선별하여 후보종을 검토하였음
 - 월동조류 조사 결과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멸종위기조류의 경우 최근 6년간(2017년~2022년)의 자료를 활용하였음
- 서산 지역 번식 및 이동 조류 서식 현황에 대한 조사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‘전국자연환경’과 천수만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음
 - 서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번식 및 이동 조류 서식에 대한 현황은 환경부에서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‘전국자연환경조사’와 서산버드랜드에서 천수만 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천수만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하였음
- 1900년대 이후 서산 지역 자연환경의 특성을 파악을 위해 조선총독부 관보와 과거 신문 자료 기록 등을 조사하였으며 특히, 서산 지역에 학(두루미)와 관련한 명칭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1900년대 이전의 세종실록, 동국여지지,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을 통해 두루미 서식 여부를 확인하였음

나. 후보종의 선정

- 서산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그리고 대중성(대중적 이미지)를 우선 고려하였으며 서산시가 추구하는 미래 지향점도 고려하여 선정함

- 더불어, 대상종이 지닌 보전 가치(멸종위기 등급 등)와 공공재인 희귀 조류 보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적 인식 증진 관점도 적용하였음
 - 미국 시애틀은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핵심종인 Great Blue Heron을 상징 '새(鳥)'로 지정하였음
 - 상징물 지정을 통해 본 종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지속적인 서식 보장을 위한 공공의 관리를 스스로 독려하고 있음

1. 월동 조류

- 국내 주요 철새 월동지 중 하나이며 서산을 대표하는 천수만 지역에는 과거 20여년 동안 1일 최대 관찰개체수로는 약200,000여개체(2014년 11월), 종수로는 90여종(2005년)의 월동 조류가 월동하였음
 - 간월호의 경우 약 40~90여종이 도래하였으며 최대관찰개체수는 160,000여개체(2014년 11월)였음
 - 부남호의 경우 폭설과 결빙으로 조사가 불가했던 2011년 제외하고 약 40~80여종, 최대 60,000여개체(2014년 11월)가 도래하였음
 - 천수만 이외에 잠홍저수지와 성암저수지 그리고 풍전저수지에도 각각 최대 11,000(2004년)여개체와 68,000(2009년), 10,000여개체(2005년)의 월동조류가 서식함
 - 월동조류 중 가장 우점으로 도래하는 종은 가창오리이며 이들이 도래하는 시기에는 전체 개체수가 급증함을 보여줌
 - 다만, 가창오리의 경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도래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6년 간은 10여마리 이하 수준으로 도래하고 있음(대규모로 도래하더라도 상주하지 않고 금강지역이나 해남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)
 - 간헐적으로 도래하는 가창오리를 제외하면 월동조류 대부분은 청둥오리, 흰뺨검둥오리, 쇠기러기, 큰기러기, 쇠오리, 고방오리 등 6종으로 파악됨



출처 :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. 환경부

<그림 1> 과거 20여년간 간월호 지역 월동조류 서식 현황



출처 :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. 환경부

<그림 2> 과거 20여년간 부남호 월동조류 서식 현황



출처 :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. 환경부

<그림 3> 과거 20여년간 잠홍저수지 월동조류 서식 현황



출처 :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. 환경부

<그림 4> 과거 20여년간 성암저수지 월동조류 서식 현황



출처 :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. 환경부

<그림 5> 과거 20여년간 풍전저수지 월동조류 서식 현황

- 최근 6년간 천수만 지역에 도래한 멸종위기 조류 서식 현황을 보면 큰기러기가 가장 많은 개체수로 도래한 것으로 나타났음

<표 1> 최근6년간 천수만 지역 멸종위기 조류 서식 현황

구분	2017		2018		2019		2020		2021		2022	
	간월호	부남호	간월호	부남호	간월호	부남호	간월호	부남호	간월호	부남호	간월호	부남호
검독수리	-	-	-	-	-	-	-	1	-	-	-	-
큰기러기	933	6,391	4,207	14,540	2,284	7,965	5,402	7,632	8,004	6,807	11,379	6,105
가창오리 ¹⁾	-	-	3	2	-	-	-	-	6	-	-	-
황새	24	8	3	11	3	27	15	23	16	8	28	9
흰꼬리수리	7	2	7	3	9	1	3	3	3	7	7	2
독수리	7	3	-	6	6	6	51	1	34	8	11	12
흑두루미	-	-	4	-	-	-	24	-	148	-	1055	4

2. 번식 및 이동 조류

-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(2019년)에 의하면 서산지역에서 관찰된 멸종 위기조류는 새홀리기와 큰기러기 2종으로 나타났음
- 천수만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천수만 지역 특히, 간월호 내부 하중도에는 멸종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가 그리고 주변 농경지에서는 뜸부기, 장다리물떼새 등이 지속적으로 번식하고 있음
 - 최근 개체수가 급감하여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쇠제비갈매기의 경우 와룡천 합수부에 인근에 위치한 하중도에 집단 번식을 함
 - 뜸부기와 장다리물떼새는 농경지 내부에서 소수가 번식을 함
- 또한, 천수만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이동시기에는 흑꼬리도요, 청다리도요를 비롯한 도요물떼새가 간월호 지역에 도래하며 그 외 구렛나루제비갈매기, 흰죽지갈매기, 저어새, 노랑부리백로 등이 지속적으로 관찰됨

3. 과거 기록상의 학(두루미)

- 서산과 두루미에 대한 기록은 백담집(栢潭集 : 1645년 편찬)이 최초이며 충청권(서산 등) 지역이 두루미 산지였다는 최고(最古)의 기록은 ‘전객사일기(典客司日記: 1661년 편찬)’임
 - 백담집의 글에는 학(두루미)이 언급되었으나 도교적 전설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두루미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듯 보임

<백담집 제1권>

제목: 서산으로 가는 중에 동쪽의 가야산을 바라보고[瑞山道中東望伽倻山]

가야산 푸른 숲이 허공에 떠 있고 / 伽倻積翠浮層空

겹겹 흰 구름이 골짜기에 자욱하네 / 萬疊白雲迷洞壑

신선 길 찾으려 해도 아득히 자취 없으니 / 欲尋仙路杳無蹤

어떻게 바람에 생학(笙鶴)을 타고 오르겠는가 / 那得天風駕笙鶴

- 전객사일기에 의하면 ‘일본에서 자국에 야학(野鶴, 두루미를 칭함)이 없어 무역하기를 요구했으며, 충청과 전남에서 나누어 맡게 하였다’ 라고 함

1) 가창오리는 과거 멸종위기야생동물2급으로 지정되었으나 2012년 해제되었음.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발간한 적색목록에서도 2008년까지 멸종위기에 해당하는 취약종(Vulnerable)으로 구분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관심종으로 분류되고 있음

- 과거 두루미 포획기록과 전시물(표본)을 통해서 볼 때 과거 서산이 두루미 산지임을 확인할 수 있음
 - Austin(1948)의 기록에 의하면 1927년에 5개체를 충청도 지역(장소 미상)에서 포획하였다고 함
 - 국립과학관이 보유한 두루미 표본 중 1916년 서산에서 채집된 개체가 있음
 - 1962년 문교부에서 발간한 ‘한국동물도감’에서도 서산 지역에서 과거 두루미 포획 기록이 있음
- 1960년에 농림부는 이로운 새의 번식지와 관광지구의 조수 보호를 위해 ‘수렵금지지구’를 설정하였는데 그 중 서산시 두루미 서식지가 포함됨(조선일보 1960년 1월 12일자)
 - 해당 기사에 의하면 서산군 서산면, 인창면, 해미면, 정미면(현재 당진시에 해당)의 일부가 해당됨
- 원병오 교수의 ‘한국의 천연기념물(조류편, 1974년도)’에 의하면 충남 서산과 예산, 당진에 두루미류 도래지가 위치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지정된 바 있음
 - 기록상의 ‘서산 학 도래지’는 1962년 12월에 천연기념물 100호로 지정되었으며, 1973년 7월에 해제되었음
 - 당시 학도래지 위치는 서산군 서산읍, 인지면, 해미면 일원이며 6.25 한국전쟁 이전에는 해마다 수백마리가 찾아와 월동하였으나 1970년대 접어들어서부터 도래하지 않았다고 함

➡ 표본을 비롯하여 관련 기록을 고려할 때 과거 서산 지역은 두루미의 주요 월동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

03 서산시 상징물(새) 후보종 선정

1. 조류 종류별 상징성

- 기러기는 한번 맺은 짝을 평생 유지하는 것에 착안하여 부부애, 다산, 신뢰 등을 상징함
- 오리류는 육지와 물을 오가므로 다재다능과 탄력성을 상징하며 더불어, 행운, 웃음, 정서적 안정 등을 상징함
 - 오리류 중 청둥오리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북아메리카 인디언 사이에서는 사랑과 충성을 상징한다고 함
 - 힌두교에서는 우주 창조신인 브라흐마 신과 연관있으며 어머니의 모성애적 힘을 상징한다고 함
- 수리류를 비롯한 맹금류는 보호의 상징이며 더불어, 인내와 결단력, 자유를 상징함
 - 일부 문화에서는 신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
- 두루미는 도교에서는 불멸의 상징이며 과거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명나라와 청나라에서는 고위 관리의 상징으로 여겼음
 -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십장생 중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며 더불어, 충절과 행운 그리고 무엇보다 선비들은 불변의 상징으로 여겼음
- 황새는 출산의 상징이며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부모의 헌신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중부와 동부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황새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음

2. 후보종 대상 검토

- 대중성을 고려할 때 서산시에서 일반일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많이 알려진 종은 청둥오리, 뜸부기, 땃금류(독수리 등) 등을 들 수 있음
 - 이들 중 오리는 다소 희극적인 이미지와 경솔한 이미지도 함께 지니고 있어 후보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
 - 뜸부기와 땃금류는 보전 가치도 높으며 뜸부기는 정서적 친근감, 땃금류는 용맹과 진취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후보종로 적합할 것으로 보임
 - 다만, 현재 천수만에 가장 많은 개체수로 도래하는 땃금류는 흰꼬리수리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종이므로 일반인에게 비교적 친숙하며 지속적으로 도래하는 독수리를 후보종으로 정함
- 대표성과 서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서산 특히, 천수만 지역에 가장 많은 개체수로 도래하는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를 들 수 있음
 - 넓은 농경지와 더불어 많은 수공간이 위치한 서산 지역은 기러기류 특히, 큰기러기의 서식지로 매우 적합한 공간임
 - 더불어,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성도 함께 지니고 후보종으로 적합함
- 현재 서산 지역에 서식하지 않아 현재의 서산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과거 서식지임을 고려한다면 두루미 또한 후보종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임
 - 문헌에서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지만 학돌재, 백학동 등 두루미와 연관된 지역 명칭이 전승되고 있어 과거 두루미 서식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서산시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상징물 후보종으로 적합함
 - 더불어, 현재 국내 유일한 두루미 서식지인 철원 평야와 연천 지역 서식지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, 개체군 안정을 위해 개체군 분산 수용 관점에서 서산 지역 개체군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
- 종 보전을 위한 대중 인식 전환과 증진 차원에서는 최근 국내 번식 개체군이 확산 추세에 있는 황새가 적합할 것으로 보임
 - 황새는 지난 20여년간의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번식 개체군의 확산과 안정화를 위해 서산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
 - 더불어, 쇠제비갈매기, 뜸부기, 두루미 또한 서산시 일대와 천수만이 지닌 서식지 가치가 높은 관계로 보전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 의식이 필요해 보임

<표 2> 서산시 상징물(새) 후보종 선정 지표별 검토

종명	선정 지표				보전 가치				비고
	대중성	대표성	역사성	인식증진	국제 보호 등급		국내 보호 등급		
뜸부기	●●●	●●		●●	Least Concern (관심필요종)		멸종2급* 천연**	●●	9 (최종 선택)
독수리	●●●	●		●	Near Threatened (준위협종)	●	멸종2급 천연	●●	8 (최종 선택)
흰꼬리수리		●			Least Concern (관심필요종)		멸종1급 천연	●●●	4
흑두루미		●●		●	Vulnerable (취약종)	●●	멸종2급 천연	●●	7
쇠제비갈매기		●●		●●	Least Concern (관심필요종)		멸종2급	●	5
큰기러기	●●	●●●		●	Least Concern (관심필요종)		멸종2급 천연	●●	8 (최종 선택)
두루미	●●●		●●●	●●	Vulnerable (취약종)	●●	멸종1급 천연	●●●	13 (최종 선택)
황새	●●●	●		●●●	Endangered (멸종위기)	●●●	멸종1급 천연	●●●	13 (최종 선택)

* 멸종1,2급 : 멸종위기야생동물 1,2급 / ** 천연 : 천연기념물

1. 뜸부기 *Gallicrex cinerea*



사진: 김현태

가. 생태적 특성 및 분포

- 긴 다리와 긴 발가락이 특징이며 번식기 수컷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인 반면 암컷은 전체적으로 황갈색의 보호색을 띤다
- 번식기 수컷의 이마에 부풀어 오른 붉은색의 이마판과 노란색의 부리가 특징임
- 논과 습초지에서 주로 서식하며 잡식성으로 수서곤충과 연체동물, 씨앗 등을 먹이 자원으로 이용함
- 우리나라와 중국, 일본을 비롯한 인도, 파키스탄 등에서 번식을 하며 인도네시아,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하여 월동함

-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이전까지 국내 전역의 논과 습지에서 흔하게 번식하던 여름철새였지만 농약 사용을 비롯한 과도한 영농활동으로 인한 서식지 손실과 환경변화 그리고 과도한 포획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음
- 최근에는 철원과 서산 등 비교적 면적이 넓은 농경지에서 매우 적은 수가 번식하고 있음

나. 서산시 서식 현황

- 천수만은 국내 대표적인 뜰부기 번식지 중 하나이며 해마다 소수가 찾아야 번식을 하고 있음
- 특히, 간월호에서 해마다 번식하며 6월과 7월 사이 모내기가 끝난 논이나 논두렁에 벼나 풀을 이용하여 둥지를 만들고 산란함

다. 상징성

- 동요 ‘오빠생각’에 등장하듯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종으로 누구나 정서적인 친근감을 느낌
 - 다만, 연령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친숙함은 덜하며 뜰부기의 실제 모습을 본 사람은 많지 않음
- 모든 이의 고향 이미지인 ‘따스함과 그리움’을 상징함
- 국내에서는 천연기념물(446호)과 멸종위기야생생물(2급)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

2. 독수리 *Aegypius monachus*



가. 생태적 특성 및 분포

- 날개길이 3m에 달하는 대형 맹금류로 암·수 모두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며 부리의 기부(시작 부위)는 회색임
-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 서식하며 유럽의 종은 대체로 한 곳에 정주하는 텃새이지만 중앙아시아와 몽골지역에서 번식하는 무리는 겨울철이면 남하하여 월동함
- 1990년대까지 국내 월동 개체수는 100여마리 안팎이었으나 내몽골지역 월동지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로 이주해옴에 따라 2000년대부터 국내 월동 개체수가 급증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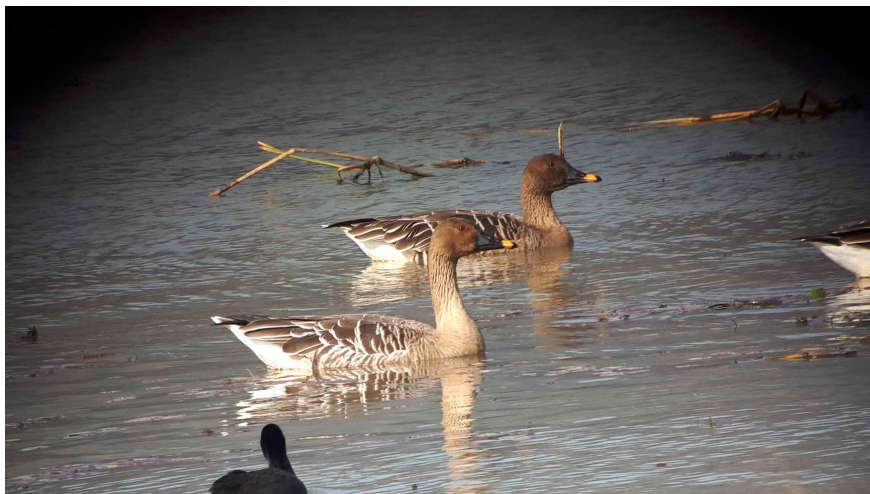
나. 서산시 서식 현황

- 독수리는 천수만 지역 뿐 만 아니라 서산 지역에 정기적으로 월동, 서식하며 대규모 월동조류 서식지나 혹은 축사 주변에서는 먹이를 찾아 하늘을 배회하는 개체가 드물지 않게 목격됨
 - 최근 6년간 기록을 보면 1일 최대 52개체(2020년)가 목격되었음
- 흔히 용맹과 자유의 상징으로 알려진 검독수리는 최근 6년간 단 1회, 1개체가 부남호에서 확인되었음

다. 상징성

- 용맹의 상징인 검독수리와 일부 혼용되기도 하지만 ‘독수리’라는 명칭으로는 일반인에게 익숙한 종임
- 실제, 사냥을 통해 먹이를 얻기보다는 동물의 사체를 주식으로 하고 있어 용맹과 자립의 상징과는 거리가 있음
 - 동물의 사체를 주식으로 하는 관계로 농약 2차 중독으로 구조되거나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
- 사체를 처리하는 독수리류는 중앙아시아 고산지역에서는 신과 연계된 영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신의 메신저로 숭배하기도 함
 - 사체를 먹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독수리들이 죽은 이의 영혼을 내세로 안내하고 믿는 풍습이 있음
 - 이 종의 학명(*Aegypius monachus*)에 수도승을 뜻하는 ‘*monachus*’가 들어가 있으며 이는 들판에 앉아 있는 독수리의 모습이 마치 검은 망토를 두른 수도승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임
- 지방 자치의 근원인 ‘경제적 자립과 으뜸’ 이미지와 부합함
 - (* 다만, 실제 독수리는 일반적인 맹금류의 이미지와 다르므로 다른 종으로 선택 가능)
- 멸종위기야생생물2급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보전가치가 높은 종임

3. 큰기러기 *Anser fabalis*



가. 생태적 특성 및 분포

- 암·수 동일하게 같은 색과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갈색임
 - 몸의 윗면(등)은 아랫면보다 짙은 갈색이며 깃의 가장자리에 흰색의 띠가 있음
 - 부리에는 노란색의 반점이 있으며 다리는 오렌지색임
- 북반구의 극지방 인근의 타이가와 툰드라 지역에서 주로 번식하며 겨울철에는 유럽의 남부지역과 아시아 남부와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여 월동함
-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겨울철새이며 추수가 끝난 농경지에서 낙곡이나, 씨앗을 주식으로 하며 습지에서는 수초의 줄기나 뿌리 등을 섭취함
- 철원평야, 한강하구, 천수만, 금강하구 등이 국내 주요 월동 서식지이며 먹이가 떨어지거나 서식지가 결빙될 경우 점점 남하하여 월동하는 경향이 있음

나. 서산시 서식 현황

- 간월호와 부남호 뿐 만 아니라 잠홍저수지, 성암저수지 등 서산시 관내 주요 서식지에서 많은 개체수로 도래함
 - 최근 6년간 천수만지역에서는 1일 최소 900여개체 ~ 최대 14,000여개체가 서식함
- 월동 초기인 11월경에 가장 많은 개체수로 도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먹이량 고갈에 따라 서식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

다. 상징성

- 다산과 다복의 상징이며 부부애와 신뢰를 상징하기도 함
- 과거 우리나라 전통혼례에서는 100년 해로를 약속하며 목각 기러기인 목안(木雁)을 사용하여 전안(奠雁)이라는 예식을 치렀음
 - 실제 기러기류는 한번 짝을 맺은 경우 끝까지 함께하며 우리나라를 찾아 월동하는 경우가족단위로 움직임
 - 배우자가 죽을 시에도 다른 개체 무리 보다는 부모 개체를 찾아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
- 서산시 지닌 '넉넉함과 풍요로움'을 상징함

- 국내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2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등 보호 가치가 높음

4. 두루미 *Grus japonensis*



가. 생태적 특성 및 분포

- 암·수 모두 동일한 형태이며 몸은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고 목과 날개 끝은 검은 색임
 - 실제 꼬리는 흰색이지만 날개를 접을 경우 날개의 검은 부분이 마치 꼬리처럼 보임
 - 정수리가 붉은색인 특징을 지녀 단정학(丹頂鶴)이라고도 불리기도 함
- 시베리아 우수리 지역이 대표적인 번식지이며 중국 북동부와 일본 북해도에서도 번식함
 - 일본 북해도에 서식하는 무리는 텃새로 겨울철에도 크게 이동하지 않음
 - 현재 전세계 생존개체수는 2021년 기준 2,000~2,650개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
- 겨울철에는 한반도와 중국 남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월동하며 국내에서는 철원 평야와 연천, 파주 그리고 강화도 지역에서 월동함
- 가족 단위로 활동하며 추수가 끝난 농경지에서 낙곡이나, 율무와 같은 씨앗 그리고 작은 어류등을 섭취하며 갯벌에 서식하는 개체는 연체동물, 갑각류 등을 먹기도 함

- 국내 대표적인 서식지는 철원평야와 연천 지역이며 최근 민통선이 북상함에 따라 안정된 서식지가 줄고 있음
 - 과거 출입이 제한된 탓에 철원평야는 안정된 먹이처와 휴식처 역할을 했지만 최근들어 농경지 면적이 줄고 사람의 출입이 많아진 이후 안정된 서식 여건이 훼손되는 등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

나. 서산시 서식 현황

- 문헌 고찰을 통해서 볼 때 과거 6.25 전쟁 이전에는 서산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월동하는 개체군이 서식했던 것으로 보임
- 원인은 뚜렷하지 않으나 서식지 훼손과 밀렵 등으로 인해 서산지역 개체군이 절종한 것으로 보임

다. 상징성

-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십장생에 포함되는 등 장수(長壽)를 상징하며, 충절, 충의를 상징하여 고위 관리특히 문관의 예복이나 제복에 수놓아져 있음
 - 실제 두루미의 수명은 최장 80여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동물원에서 최적의 조건일 때이며 야생에서는 30~40년 이상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
- 중국의 『상학경(相鶴經)』, 『양생요(養生要)』에는 장수(長壽)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고, 벼슬이나 관직과 연관되어 입신출세(立身出世)를 상징하기도 함
 - 구름 속에 비무(飛舞)하는 학의 모습을 ‘고아일품(高雅一品)’이라 하여, 뜻이 높고 바르며, 아담한 것이 으뜸간다는 의미를 내포
- 도교에서는 불멸의 상징으로 여기며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선비의 ‘새’로 여김
- ‘학수고대(鶴首苦待):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늘이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몹시 기다림을 일컬을 때 쓰임
- 일본에서는 충절과 보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항공사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함
- 멸종위기야생생물1급과 천연기념물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취약종(Vulnerable) 등 급으로 지정되는 등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종임
- 서산시가 추구하는 ‘높은 뜻과 올바른으로 미래를 향한 비행’을 상징함

5. 황새 *Ciconia boyciana*



사진: 김성현

가. 생태적 특성 및 분포

- 암·수 모두 동일한 형태이며 몸은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고 날개 끝은 검은색임
 - 실제 꼬리는 흰색이지만 날개를 접을 경우 날개의 검은 부분이 마치 꼬리처럼 보임
 - 검은색의 길고 굽은 부리가 특징이며 목은 두루미에 비해 짧고 굽은 편임
 - 과거 유럽의 황새와 동일종으로 분류하였으나 다른 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부리색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음(유럽 종은 부리가 붉은색임)
- 시베리아 동남부 지역에서 주로 번식하며 중국 동남부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서 월동함
 - 현재 전세계 생존개체수는 2007년 기준 1,000~2,499개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
- 천수만과 해남 지역은 국내 대표적인 황새 월동 서식지이며 이들 개체는 대부분 시베리아 지역에서 번식하고 월동을 위해 남하한 개체들이 대부분임
- 국내 서식 개체군은 1971년 충북 음성에서 번식하던 쌍이 마지막이었으며 수컷이 밀렵된 이후 사라졌음
 - 지난 1996년부터 인공증식을 통해 개체수를 확보한 황새 무리를 방사하면서 최근에는 국내 번식 개체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

나. 서산시 서식 현황

- 지난 6년간 꾸준히 천수만지역에서 월동 개체가 관찰되고 있으며 최소 14개체(2018년)~최대 38개체(2022년) 수준임

- 지난 23년 3월에는 서산 버드랜드에서 야생개체와 국내 인공증식개체가 처음으로 자연번식에 성공을 한 사례가 있음

다. 상징성

- 출산과 효도의 상징이며 더불어 행운의 아이콘이기도 함
 - 유럽 지역에서는 부모를 돌보는 효도의 상징이며 독일에서는 아이를 점지하는 즉,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 데려온다는 전래 문화가 있음(이 이야기는 여러 지역으로 전파됨)
 - 이슬람에서는 메카로 성지 순례를 가는 길에 동행하므로(아프리카와 유럽을 주기적으로 오고 가는 동안 일정 기간이 겹침) 신성시 여기고 있음
 - 황새가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여러 국가에서 전래되고 있음
- 멸종위기야생생물1급과 천연기념물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(Endangered) 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종임
- '인구 증가'를 결실을 맺는 살기좋은 서산시를 상징함